

강진군 농가수 대비 역대부농 전남 최다

지난해 538농가 역대 수입 전년비 증가율도 25%로 전남 22개 시·군 중 1위

강진군이 전남 지자체 가운데 역대 부농을 가장 많이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부농에 진입한 220농가 중 강진에서만 132농가가 배출, 60%를 차지했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발표한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조사 결과, 강진군이 538농가로 전년 406농가보다 25% 증가했다. 전체 농가 대비 역대 부농은 9.6%를 기록, 전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전남에서 역대 부농에 진입한 농가 220농가 중 60%인 132농가가 강진지역이었다.

역대 부농 농가 수로는 고흥이 551곳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농가 대비 성장세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강진지역 역대 부농은 품목별로 수도작이 256농가로 가장 많았고 축산농가, 과수



지난해 열린 강진 초록민음 직거래장터 1주년 기념식에서 관광객들이 지역 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5월 문을 연 뒤 농업인 실질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농가, 채소농가 순이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FTA 체결, 이상 기후,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영농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

감, 농수축산물 직거래 등 안정적 판매처 확보 등이 고소득 농업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를 통

해 강진청자축제, K-POP 콘서트 등 12개 축제를 추진해 256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서울·경기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13만2000명이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강진 농수특산물을 직접 구매해 79억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최고 농촌마을 감성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체험은 지난해 8100여명이 다녀가 총 5억2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푸소체험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따뜻한 정서의 교류라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해오고 있다.

강진군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해마다 농업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88억원이 증액된 1042억원(32.2%)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50억원 증액해 가구당 약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맞춤형 비농사와 이모작 재배 지원,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 강진형 로컬푸드 개설 등 농업인 소득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숙박업소 15곳과 상생발전 협약

장흥군이 숙박업체와 우드랜드를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6일 지역 숙박업체 15곳과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장흥을 찾는 여행객들이 15개 숙박업체를 이용하면 우드랜드 입장료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30% 할인된 요금은 성인 2100원(기존 3000원), 청소년 1400원(기존 2000

원), 어린이 700원(기존 1000원) 등이다.

우드랜드는 또 시설 내 숙박 공간이 채워졌을 때의 경우 협약 체결된 숙박업체로 우선 안내하게 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협약 체결 뒤 숙박업체 이용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 재협약 추진키로 결정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관광발전을 물론,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평생학습센터 상반기 강좌 수요조사

"자신이 듣고 싶은 평생학습강좌, 직접 선택하세요."

강진군 평생학습센터는 올해 상반기 개설할 평생학습 강좌의 수요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평생학습 강좌는 지역민들에게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설되며, 이번 수요조사는 수강생들이 직접 듣고 싶어하는 강좌를 열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한 한바탕, 민화실기 강좌 등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민화실기를 수료한 정미진씨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강의를 훌륭한 강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실력이 늘 수 있도록 도와준 평생학습센터에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 군민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무산김(주) 자본금 확대 등 경영구조 개선 시급

착한김 인식 연매출 50억원 부채 많아 호황기 활용 못해 증자·투자 등 경영전략 필요

김산업이 호황인 가운데 무산김의 원조 장흥무산김(주) 경영구조를 개선해 재도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8일 장흥무산김(주)와 김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장흥무산김(주)는 지난 2009년 장흥지역 김양식어민 190명이 전국 최초로 '산을 쓰지 않겠다'는 선포와 함께 설립됐다. 친환경 착한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성장, 연간 매출 5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전국수산물 브랜드 대전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 '떡거리 X파일'에서 착한김으로 선정되면서 친환경 김의 선도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친환경 착한김 대표 브랜드의 장점을 활용해 전국 학교 급식을 비롯해 유기농 로컬푸드, 김밥전문점 등 판로를 개척했다. 또 '오가닉'(친환경유기농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홍콩, 호주 등지에 연간 5억원 이상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19억원에 달하는 부채 탓에 수익금의 10% 이상이 금융기관 이자로 빠



장흥지역 김양식 어민들은 친환경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다.

져나가면서 어민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억8000만원인 자본금 구조를 제3투자자 모집과 증자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주주가 영세 어민들이어서 자본구조의 한계

와 마케팅 전략 부재로 김산업 호황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양진 장흥무산김(주)대표는 "장흥무산김은 연간 전국 김생산량에 5% 수준인 500만송에 불과하지만 '산'을 쓰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 친환경 착한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 성장



상품화된 장흥무산김.

기류를 타고 있는 지금 증자와 제3투자자 모집 등 획기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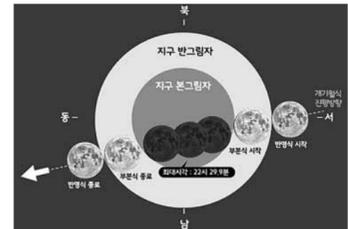
그러나 일부 이사와 주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제3 투자자를 모집해 증자하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남진전문과학관 31일 밤 개기월식 관측행사

장흥 정남진전문과학관은 오는 31일 오후 8시 개기월식 관측행사를 연다.

개기월식(사진)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 궤도에 놓여있을 때, 달이 지구 그림자 속을 지나가며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슈퍼문'(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까워 더 크게 보이는 달) 상태에서 일어나 월식을 더 잘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전문대설



는 달)도 볼 수 있다. 개기월식은 31일 오후 8시 48분부터 시작되며 10시 30분에 최대가 되고, 새벽 0시 11분에 종료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익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